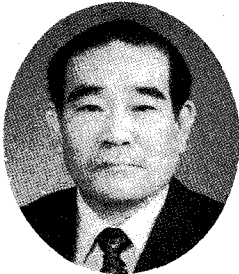


결핵의 날과 사회인식



오 종 방
보사환경신문 편집국장

■ 매년 3월 24일은 세계
폐결핵의 날이다.
전세계적으로 「결핵비상」이
선포된 지금, 결핵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

이 달 3월 24일은 「세계 결핵의 날」이다. 해년마다 맞게 되는 이날이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나 가까운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결핵을 앓고 있지 않는 한 전혀 관심밖의 문제로 돌려버리기가 일쑤다.

성인병에 해당하는 당뇨병이나 동맥경화, 중풍, 관절통 및 간질환 등은 한

번 앓아봤던 사람들의 경우 아무래도 이해도가 깊고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이지만 결핵(tuberculosis)은 일반적으로 그 숫자가 많은 다른 질환보다는 만연된 분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질환자중에서도 가장 소외되는 현상을 감지할 수 있어 안타깝다.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은 병에 관한 한 누구를 불문하고 절대 장담하고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건강했을 때 종합진찰을 해 보도록 권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반적으로 생활인들이 질병에 관해 정보를 얻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TV방송 매체의 건강란 프로를 통해 자기의 증세를 비교, 평가해 보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호흡기 질환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경우인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나치다가 오히려 병을 짚게 만드는 사례가 많은데 모든 질병은 초기에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상책이다.

필자는 일생을 통해서 호흡기 질환중에서 폐결핵 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가까운 주변에서 목격한 사실이 있

다. 오래전 일로特效약이 별로 없는 때라서 무척 고생을 하는 것을 봤다.

안타까운 그 모습은 형언할 길이 없을 정도였다. 왜냐하면 저녁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심한 기침을 연속으로 하는 증세를 봤기 때문이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결핵에 관한 한 대동소이한 양상이 나타나리라고 보여지는 바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90년 이래 '95년도 까지 연간 보건소 신규등록 결핵환자수를 보면 90년에 8만 6천 5백 9명, '91년에 8만 4천 67명, '92년도에 6만 2천 9백 25명, 93년도에 8만 2천 8백 82명, '94년도에 6만 8천 3백 80명 그리고 '95년도에는 6만 2천 6백 67명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90년도까지의 전국 결핵양성환자가 72만 8천명이었는데 '95년에는 52만 8천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집계는 일반병원 내원자들의 숫자는 빠진 데이터므로 이를 감안하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서 연령별(95년도 기준)로 보면 1~4세까지 0.4%, 5~14세 1.9%, 15~24세는 22.6%로서 가장 많은 감염율이 발생했고 25~34세까지 20.9%로서 그 다음 순위를 보이고 있다. 35세~44세 사이가 13.4%로서 감염율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5~54세가 10.6%, 55~64세 12.7% 그리고 65세 이상인 등록환자가 17.5%로 나타났는데 가장 많

■ 결핵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결핵을 퇴치하는 운동이 전개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

은 15~24세 사이의 22.6% 보다 5%정도 떨어지지만 나이가 노년으로 들어가면서 환자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인체의 면역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노령기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제력이 여의치 못할 경우는 타 질병에 비하여 소외현상이라는 것이 눈에 띄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연말이면 해마다 크리스마스 쉼을 발행하여 기금을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단 질환으로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캠페인이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옛날에는 결핵에 감염되면 좋은 약이 없어 거의 死病으로 알고 스스로도 포기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노력하고 의사의 지시에 잘 따르주지만 한다면 거의 완치되는 병이다.

사회의 인식이 가장 난처한 분야의 질병이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한 몸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 분야 질병퇴치에 뜨거운 관심이 있길 바란다. †